Since Oct. 10, 2004
해외 한인 장로회
Church of the Lord
하나님의 사랑교회
Dec. 14, 2025
(통권 1085호)

오늘의 말씀

"임재의 감사"

[마태복음 1:20~21]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아내마리아데려오기를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우리는 6주간 계획의 "감사의 영성" 시리즈 가운데, "감사의 시작 ~ 기억 속에서 깨어나는 감사", "기다림의 감사", 그리고 "어두움 속의 감사"라는 제목의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네번째 말씀으로, "임재의 감사(Immanuel Gratitude)"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번째 주일입니다.

서론 ~ 감사의 절정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신 사건(임마누엘)을 묵상하는 주간입니다. 감사의 모든 이유는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오신 사건이며 그 임재 자체가 우리의 감사의 절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왜 임마누엘이 감사의 가장 높은 이유인가, 또 어떻게 그 임재가 우리 삶을 바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 임마누엘의 은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임마누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은혜입니다.

[마 1:18~21]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우리가 본문에서 본 첫번째 요소는 요셉의 위기입니다. 마리아의 임신 사실이 알려지자, 요셉은 혼란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v.18)을 알게 되었을 때 요셉은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의 꿈이 무너졌고, 그의 미래가 흔들렸고, 그의 명예와 삶 전체가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은 은혜의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혼란에 빠져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요셉이 꿈에 나타나 그에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20절)."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선언입니다.

[사 41: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수 1:9]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임마누엘은 두려움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두려움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신약의 요셉에 대해 배우면서 구약의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구약의 요셉 역시,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의 가장 어두운 순간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창 39: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창 39: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요셉이 보기에는 인생이 실패한 것 같았지만, 하늘의 시각에서 보면 그 시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가장 깊이 동행하시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마리아의 임신 소식 앞에서 요셉이 겪은 두려움과 혼란도, 사실은 임마누엘의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위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임재의 시작"일 때가 참 많습니다.

이어서 천사의 말씀의 다음 선언은 임마누엘의 목적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일"입니다. 21절을 보세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대림절에 감사의 영성을 배워야 할 명백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의 변화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신자의 삶의 시작점이 바로 감사라는 일관된 주제를 이 감사의 영성 시리즈에서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딤전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감사는 구원에서 시작되며,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임마누엘은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입니다.

[마 1:22~23]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시키기 위함"이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이 아니라 완벽한 예언 성취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700년 전, BC 734년경 유다의 위기 속에 주신 약속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 7: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이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임을 증명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감사는 약속의 성취에서 솟아납니다.

[민 23: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히 10:23]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임마누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입니다.

임마누엘은 '순종하는 삶에 임하는 은혜'입니다

[마 1:24~25]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요셉의 즉각적 순종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변명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곧바로 순종합니다. 24절을 보세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주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했습니다. 바로 이런 순종이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서도 그런 면을 배웠습니다.

[창 22:2~3]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을 향해 걸어갔던 롯의 삶과 얼마나 대조가 되는 삶이었습니까? 우리의 생애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니엘서 3장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던져집니다. 왕이 보기에 그들은 이제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풀무불을 들여다보며 놀라 외칩니다.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 보라 내가 네 사람이 풀려서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단 3:24-25 요약)." 불이 없는 곳에 임마누엘이 아니었습니다. 불 한가운데, 가장 두려운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는 우리를 풀무불 "바깥으로"만 꺼내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 불 속을 함께 걸어가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요셉의 순종, 아브라함의 순종,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순종은 모두 같은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순종의 길은 때로 좁고 두려워 보이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이 먼저 서 계십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통해 '미래의 은혜'를 준비하십니다. 25절을 보면, 요셉은 마리아를 데려온 후 그녀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순종은 임마누엘의 역사를 보호하고 이어가는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 통로입니다.

적용 메시지

A 여러분은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나요?
그것이 무엇이라 해도, 임마누엘은 두려움을 이기는 은혜입니다.

B. 주님이 내 삶에 오신 사건, 곧 자신의 구원의 날을 기억하고 있나요?
임마누엘은 곧 우리의 구원을 뜻합니다. 구원은 감사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C.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중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조금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고 감사하세요..

D. 나는 순종의 자리에서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있나요?
우리의 순종이 임재의 문을 여는 통로가 됩니다.
오늘의 결론은 "임마누엘의 은혜는 감사의 절정이다" 입니다.

오늘의 기도 포인트입니다.

A. 하나님, 임마누엘의 은혜가 내 마음과 가정 위에 임하게 하소서.
B. 두려움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C.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D. 죄 사함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하소서.
E. 순종의 삶을 통해 임마누엘의 역사가 흘러가게 하소서.
F. 우리 교회가 임마누엘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